

KIA 김주찬·최형우 외야를 지배했다

KBO 골든글러브 수상 영예

김주찬 17년만에 첫 수상

투수 부문, 두산 니퍼트 압도적

프로야구 2016시즌을 빛낸 '황금장갑'의 주인공 10명이 가려졌다. KIA 타이거즈에서는 김주찬과 삼성에서 최근 트레이드 된 최형우가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3일 서울 더케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6 KBO리그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열렸다. 올 시즌 MVP에 빛나는 두산 외국인 선수 터스틴 니퍼트가 345표 중 314표(득표율 91%)를 찍어 압도적 투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차지했다. 314표는 이번 골든글러브 모든 포지션을 통틀어 가장 많은 득표수다.

'투수 3관왕' 니퍼트는 이번 수상으로 투수 부문에서는 다니엘 리오스(두산·2007년), 아킬리노 로페즈(KIA·2009년), 앤디 밴 헤켄(넥센·2014년), 에릭 해커(NC·2015년)에 이어 역대 5번째이자 3년 연속 외국인 선수 수상자가 됐다.

니퍼트와 '우승 배터리'로 호흡을 맞춘 두산 양의지는 니퍼트에 이어 가장 많은 312표를 받으면서 포수 부문 수상자가 됐다.

'타격 3관왕'에 빛나는 KIA 최형우도 격전지였던 외야에서 311표(득표율 90.1%)를 가져가면서 세 명의 외야수 중 가장 먼저 이름이 불렸다. 올 시즌 삼성 소속으로 뛰었던 최형우는 타율(0.376), 타점(144개), 최다안타(195개) 3개 부문 정상에 올랐다. 출루율(0.464)과 장타율(0.651)도 리그 2위를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성적으로 자신의 통산 네 번째 골든글러브 수직에 성공했다. 최형우는 시즌이 끝난 후 FA 계약과 함께 빨간 유니폼을 선택하면서 이날 KIA 선수로 단상에 올랐다.

올 시즌 각종 시상식장에서 상을 쓸어담은 최형우는 "감사 드린다. 말도 안 되는 시상식과 행복, 모든 기쁨을 다 누리진 것 같다. 오늘로 2016년의 행복감을 끝으로 하고 2017 최형우, KIA 타이거즈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형우와 함께 김주찬도 치열한 외야 경쟁에서 승자가 됐다. 17년차 김주찬의 첫 수상이다.

김주찬은 "야구를 하면서 꼭 한번 받아 보고 싶었던 상이었는데 늦었지만 처음 받게 돼서 기분이 좋다. 올 시즌 김기태 감독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 더 좋은 성적으로 내년에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활짝 웃었다.

외야의 남은 한 자리는 두산 김재환의 몫으로 돌아갔다.

빅리그로 복귀한 에릭 테임즈(전 NC)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1루수 부문 수상자가 되면서 외국인 선수 사상 첫 2년 연속



13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6 타이거뱅크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골든글러브 외야수 부문을 차지한 김주찬(왼쪽)과 최형우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2루수 부문의 영광은 넥센의 '캡틴' 서건창에게 돌아갔다. 두산 주장인 김재환은 지난해에 이어 유격수 골든글러브 주인공이 됐다. 올 시즌 40홈런을 쏘아올린 SK 최정(3루수 골든글러브)을 품었다.

한화의 '4번 타자' 김태균은 215표를 얻어 '국민타자' 이승엽(삼성)을 누르고 지난 2008년 1루수 부문 수상 이후 8년 만에 다시 시상대에 올랐다.

이승엽은 88표 획득에 그치며 자신이 보유한 역대 최다(10회)이자 최고령(39세 3개월 20일) 기록을 경신하는 데 실패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용규 이어 4년만에 이름 올려

한대화·김성한·선동열·이종범 6회

타이거즈 '황금장갑' 계보

4년 만에 '호랑이 군단'의 골든글러브 수상자 명단이 업데이트 됐다.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 김주찬과 최형우가 13일 서울 양재동 The-K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6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영광의 주인공이 됐다. 두 사람은 이날 시상식 단상에 오르면서 지난 2012년 외야수 이용규(현 한화) 이후 명맥이 끊겼던 타이거즈의 '황금장갑' 계보를 이었다.

두 사람의 수상으로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2루수 차명화, 외야수 김준환을 시작으로 차곡차곡 쌓여온 타이거즈 골든글러브는 모두 6개가 됐다.

2011·2013·2014년 삼성 선수로 골든글러브를 품었던 최형우는 이번에는 'FA

100억' 계약과 함께 KIA 선수로 외야수 한 자리를 차지했다. 프로 17년차 김주찬에게는 생애 첫 골든글러브다.

해대 시절을 포함해 KIA의 최다수상 기록은 6회. 한대화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3루수 골든글러브를 독식하면서 6회 수상 기록을 가지고 있다. '오리 공맹이' 김성한도 1985년부터 1989년까지 내리 1번씩 한 번 단상에 오르면서 6개의 골든글러브를 수직했다.

KIA의 영구결번으로 남은 18번과 7번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볐던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과 '바람의 아들' 이종범도 6차례 골든글러브 수상자로 호명됐다. 이종범은 해대 시절이던 1993·1994·1996·1997년에는 유격수 부문의 수상자

가 됐고, 국내 복귀 후 두 번째 해였던 2002년과 다음해인 2003년에는 KIA 유니폼을 입고 외야수 골든글러브를 들어올렸다.

5차례 시상식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재간동이' 이순철도 1985년 3루수 골든글러브로 스타트를 끊은 뒤 한대화의 이적과 함께 외야로 이동, 4차례 더 시상대에 올랐다. 1985년 3루수 골든글러브 수상자인 이순철은 이해 신인상까지 수상하면서 타이거즈 최초이자 마지막 신인왕이기도 하다.

2009년 'V10'을 이끌었던 로페즈는 이해 골든글러브 시상식 투수 부문의 주인공

이 되면서 타이거즈 유일의 외국인 골든글러브 수상자로 이름을 남겼다.

1991년 무려 6명이 한꺼번에 골든글러브 시상식 단상에 오르기도 하면서 전성기를 구가했던 타이거즈는 1997년 이대진(투수), 홍현우(3루수), 이종범(유격수), 박재용(지명타자)을 끝으로 한동안 시상식의 들러리 신세가 되기도 했다. 2002년 김종국(2루수), 이종범(외야수)이 KIA로 팀 명이 바뀐 후 첫 수상자가 된 뒤, 올 시즌 김주찬·최형우까지 2000년대에는 15개의 골든글러브가 더해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장하나



평산산

KLPGA야 LPGA야

16일부터 개막전...김효주·장하나·평산산 격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가 2017년 시즌 개막전을 앞당겨 치른다.

오는 16일부터 서울 용인 중국 광저우 사자호 골프장(파72·6012야드)에서 열리는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은 2017년 시즌 개막전이다. 2007년부터 KLPGA투어는 시즌 개막전을 앞당겨 열고 있다.

이 대회는 KLPGA투어가 중국여자프로골프(CLPGA)투어와 공동 주관한다. 출전 선수 106명 가운데 51명은 KLPGA투어 선수이고 나머지는 중국 여자프로골프 투어와 아마추어 선수들로 채운 까닭이다.

KLPGA투어 시즌 개막전이지만 주인공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선수들이 주인공이다. LPGA투어에서 뛰는 김효주와 장하나가 중국 최고 스타 평산산과 이 대회에서 대결한다.

김효주는 2012년과 2014년 이 대회에서 우승했다. 작년에는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효주는 2014년과 2015년 중국 금호타이어 여자오픈을 잇따라 우승하는 등 중국에서는 유난히 좋은 성적을 냈다.

장나는 2013년 이 대회 챔피언이다. 우승 당시 개최 코스가 바로 이번 대회

회를 유치한 사자호 골프장이다. 올해 3승으로 LPGA투어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우승 트로피를 수집한 장나는 이 대회에서 기분 좋게 올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LPGA투어 개막전에 출격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번 대회 최강의 우승 후보는 김효주나 장하나가 아니다. 현지에서는 최근 한 달 반 동안 무려 3차례 우승을 거둔 중국의 간판스타 평산산을 주목한다. 광저우에서 태어나 자란 평산산은 이번 대회는 안방에서 치르는 셈이다.

국내파는 화려이 다소 뒤진다. 올해 KLPGA투어를 석권한 박성현을 비롯해 고진영, 장수연, 이순현 등 상급랭킹 1~4위 선수가 불참한다. 박성현은 작년 이 대회 챔피언이지만 내년 LPGA투어 연착륙을 위한 준비 때문에 타이틀 방어를 포기했다.

국내파 선봉장은 상급랭킹 5위 배선우와 박성현의 뒤를 이어 장타어왕 자리를 넘보는 김민선 그리고 새로운 강호로 우뚝 선 김해립 등이다.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우승한 '중국 전문' 김해운도 정상 복귀를 노린다. /연합뉴스

미리보는 평창 쇼트트랙 스타

쇼트트랙 4차 월드컵 16~18일 강릉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종목에서 '금빛 질주'를 펼칠 주인공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이벤트가 펼쳐진다.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는 전세계 쇼트트랙 선수들이 총출동하는 열전의 무대는 오는 16~18일까지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리는 2016-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다.

4차 대회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1년 2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종목이 치러질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테스트이벤트'로 열린다는 점이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쌍두마차'로 불리는 심석희(한국체대)-최민정(서현고)이 이번 시즌 처음으로 안방 무대에서 팬들과 만나는 게 관심거리다. 심석희와 최민정은 이번 시즌 월드컵 1~3차 대회를 치르는 동안 3개 대회 연속 2관왕 타이틀을 펼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심석희는 1,500m 종목에서 금메달 3개를 따낸 것을 비롯해 계주 금메달 3개를 합작했고, 1,000m에서는 은메달도 1개 추가했다. 최민정 역시 개인 종목 금메달 3개(1,000m 2개·1,500m 1개), 계

주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500m 2개·1,500m 1개)를 목에 걸었다. 여기에 김지유(잠실고)도 2차 대회에서 1,000m 금메달과 1,500m 은메달을 따내며 금부상했고, 3차 대회에서도 은메달 2개(1,000m·1,500m)를 추가해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여자 대표팀은 월드컵 1~3차 대회를 치르는 동안 금메달 10개, 은메달 7개, 동메달 1개 등 총 18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독보적인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여자 대표팀과 비교해 부진했던 남자 대표팀도 뒷심을 발휘하고 있어 4차 대회 성과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태극전사'를 뿐만 아니라 세계 톱클래스 선수들도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빛을 발할 전망이다.

여자 500m에서는 월드컵 랭킹 1위인 영국의 엘리사 크리스티를 필두로 중국의 판치신(2위)과 캐나다의 마리안 생셀레(3위)의 3파전이 예상된다. 또 2011년 러시아로 귀화해 소치 동계올림픽 3관왕에 오른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의 활약 여부도 팬들의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

문신 제거 이대은, 3수 끝 경찰야구단 입단

우완 이대은(27·전 지바롯데 마린스)이 3수 끝에 경찰야구단 입단을 사실상 확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제349차 서울청 의무경찰 선발시험 중간합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대은은 KIA 타이거즈 사이드암 박준표와 함께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최종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경찰야구단 입단을 확정한다.

이대은은 지바롯데에서 뛰던 9월 경찰야구단 입단 지원서를 냈으나, 신체검사에 불합격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KBO 리그 신인지명회의'에 응하지 않고 국외 리그에 진출한 선수는 경찰야구단, 상무에 입단해도 퓨처스리그에 나설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KBO가 10월 13일 이사회를 열고 "KBO리그를 거치지 않고 해외구

단과 계약한 선수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프리미어 12,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 KBO가 정한 국제대회에 참가해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우 상무나 경찰야구단에 입대해 KBO 퓨처스리그에서 출장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이대은은 경찰청에 다시 지원해 신체검사를 치렀으나 왼쪽 귀 아래 가죽 이니셜을 새긴 문신 때문에 탈락 판정을 받았다. 이대은은 11월 2일 문신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다. 경찰야구단은 추가 모집 공고를 냈고, 이대은이 이에 응했고 신체검사를 통과했다.

2017 WBC 대표팀 최종 엔트리에도 이름을 올린 이대은은 자신의 바람대로 야구 선수로 뛰며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